

# 당신이 몰랐던 부르고뉴... 그 다양함에 대해



안상미 기자의  
Why, wine

## 佛 부르고뉴 와인

“부르고뉴를 두려워하지 말라.”

매년 전 세계 최고가 와인으로 입에 오르내리는 게 바로 부르고뉴 와인이지만 사실 전체 부르고뉴 지역을 놓고 보면 천문학적인 금액으로 경매시장에 나오는 와인의 비중은 1%, 아니 0.1%도 되지 않는다. 제대로 들여다보면 가성비 좋은 와인이 더 많다. 그것도 레드 와인 이든 화이트 와인 이든 대체불가능한 부르고뉴의 좋은 품질은 그대로 갖고서다.

부르고뉴 와인 협회(BIVB)가 지난달 한국을 찾았다. 지난 2016년 이후 10여 년 만이다. 그 사이 부르고뉴에서 한국의 위상이 많이 달라졌다. 한국 와인 시장이 가파르게 성장하면서 부르고뉴 와인의 수입도 4배 안팎으로 급증했다. 이제 부르고뉴에서 한국은 와인 수출 물량



지난달 한국을 방문한 프랑수와 라베 부르고뉴 와인 협회장(오른쪽부터)과 장 프랑수와 보르데 부르고뉴 와인 협회의 사블리 와인 위원장이 건배를 제안하고 있다. /옵스코치 시즌

기준 15위, 금액 기준 12위의 국가다.

프랑수와 라베 (Francois Labet) 부르고뉴 와인 협회장은 “전설적인 와인들로 알려진 부르고뉴지만 대로가 아닌 셋길로 들어가 새로운 보석같은 와인을 발견할 것을 제안한다”며 “많은 빌라주(마을)급 아뵐라시옹(AOC·원산지 통제 명칭)은 상대적으로 덜 알려졌지만 놀랄만큼 뛰어난 가성비를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르고뉴 아뵐라시옹은 모두 84개

다. 이 가운데 빌라주 아뵐라시옹은 44개다. 주브레-상베르팽 같은 유명 산지 말고도 몽파나나 오쎬-뒤레스, 픽상 등 오랜 역사와 좋은 품질의 아뵐라시옹도 많은 얘기다.

먼저 짚고 넘어갈 게 있다. 부르고뉴(Bourgogne)는 부르고뉴다. 미국식인 버건디(Burgundy)로 번역해 부르지는 않는다. 부르고뉴라는 명칭은 이 지역과 생산자들의 정체성 그 자체로 고유 명사다. 사람도 성(姓)은 다르게 바꾸지

않고 고유의 발음으로 불러주듯 부르고뉴도 그래야 한다.

부르고뉴는 어찌보면 단순하다. 품종도 레드 와인은 피노누아와 가메, 화이트 와인은 샤르도네와 알리고떼 정도로 단출하다. 그런데 막상 와인은 놀랄 만큼 다양하다.

이인순와인랩의 이인순 원장은 “부르고뉴는 지형적으로 보면 남북으로 230km 가량 길게 뻗어있어 한 가지 품종으로 만들어도 지역에 따라 각각의 특징을 지닌 와인이 된다”며 “몇 안되는 품종으로 전세계 사람들이 열광하는 다양한 스타일이 나올 수 있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실제 같은 샤도네이 품종으로 만들었지만 부르고뉴 북쪽의 삐티 사블리 와인과 남쪽 끝에 위치한 생-베랑 와인은 확연히 달랐다.

‘삐티 사블리, 도멘 모니에’는 그간 접했던 사블리 와인보다 가볍고 경쾌했다. 청사과와 청메 느낌에 순수하고 맑다.

‘생-베랑, 비네롱 데 테르스크레트’는 더 따뜻한 기후를 그대로 반영하듯 파인애플 같은 열대 과일의 향과 느낌으로 보다 화사했다.

윤효정 소믈리에에 “두 와인 모두 입안에서 효모 양금 속성과 미네랄에 따른 좋은 느낌으로 음식과도 잘 어울린다”며 “보통 사블리 와인엔 꿀이라고 한 정적으로 생각하지만 생선이나 한식에선 잡채같은 기름진 음식과도 잘 즐길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윤 소믈리에에는 지난 2023년 한국 소믈리에 대회 우승자다.

작년 한국 와인 시장이 역성장을 했지만 사블리 와인의 수입은 오히려 큰 폭으로 늘었다. 지난해 초부터 11월 말까지 수입규모는 전년 대비 29% 급증한 320만 유로 안팎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장 프랑수와 보르데 (Jean-Francois Bordet) 사블리 와인 위원장은 “사블리는 샤르도네라는 단일 품종을 사용해 드라이한 화이트 와인만 생산하지만 단순함 뒤에는 복합적인 면모를 지니고 있다”며 “편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는 접근성이 높은 삐티 사블리로 시작할 수 있고, 좀 더 특별한 날에는 사블리 프리미에나 그랑크뤼를 찾으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smahn1@metroseoul.c

## 문화 단신

### 롯데시네마, ‘플레이브 대쉬 인 시네마’ 싱어롱 상영회 진행

다양한 콘텐츠 경험의 무한 확장을 추구하는 롯데시네마가 버추얼 아이돌 그룹 ‘플레이브(PLAVE)’의 쏫 콘텐츠 ‘플레이브 대쉬 인 시네마’ 싱어롱 상영회를 확정하며 데뷔 2주년을 축하하는 인사 영상을 추가 상영한다고 13일 밝혔다. 플레이브 대쉬 인 시네마는 예매 오픈 직후 폭발적인 팬들의 반응 속에 3만

명을 훌쩍 넘는 사전 예매율을 기록했으며 ‘미키 17’에 이어 실시간 예매율 2위를 차지해 화제를 모았다. 특히 7분 12초 분량의 쏫 콘텐츠를 극장에서 상영한 실험적인 시도로 주목받고 있다. 롯데시네마는 끌어오르는 흥을 참기 힘들었다는 팬들의 의견을 반영해 14일부터 16일까지 ‘싱어롱 상영회’를 개



최하여 흥행 열기를 이어갈 예정이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 CGV, MLB 도쿄시리즈 개막전 SCREENX로 생중계

CGV는 오는 18일 일본 도쿄돔에서 열리는 2025 MLB(메이저 리그 베이스볼) 월드투어 도쿄시리즈 ‘LA 다저스 vs 시카고 컵스’ 경기를 SCREENX로 생중계한다고 13일 밝혔다. 국내 최초로 MLB 경기를 좌, 우 벽면이 확장된 3면 SCREENX로 만날 수 있다. 경기에는 LA 다저스 소속의 오타니

쇼헤이, 야마모토 요시노부, 프레디 프리먼, 무키 베츠, 시카고 컵스 소속의 스텝키 세이아, 이마나가 쇼타 등 슈퍼스타가 출몰한다. SCREENX는 CGV가 지난 2013년 세계 최초로 론칭한 다면 특별 상영관으로 좌, 우 벽면까지 확장되는 파노라마 영상을 통해 스크린 프레임을 공간



전체로 확대해 넓은 시야각을 제공한다. /신원선 기자

### 엔씨소프트-텐센트, 내달 ‘블레이드&소울2’ 中 출시

엔씨소프트와 텐센트가 멀티플랫폼 MMORPG ‘블레이드&소울2’를 내달 3일 중국에 출시한다. 엔씨와 텐센트는 ‘블레이드&소울2’ 정식 서비스에 앞서 여러 차례 사전 테스트를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 테스트에서 확인한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중국 이용자가 선호하는 콘텐츠들을 다수 적용했다. ▲조작 편의성

개선 ▲UI 편의성 개편 ▲모바일 최적화 등 현지화 작업도 진행했다. 불소2만의 차별점인 자유로운 직업 전환과 액션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대응 전투’, ‘스킬 콤보’ 등 여러 전투 요소를 강화했다. 이용자 부담을 낮추고 게임 내 거래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을 적용했다. 최상급 장비는 오직 게임 플레이를 통해



서만 얻을 수 있도록 설계했으며, 획득한 모든 아이템은 거래소에서 거래 가능하도록 설정했다. /최빛나 기자 vitna@

## 주말은 책과 함께

### “우리 사회에 ‘잉여’ 허락해야”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의 준말)’를 넘어 ‘갯성비(God+가성비)’란 말을 만들어낼 정도로 극도의 능률을 추구하는 한국인들은 ‘잉여’라는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다. 생산성과 효율 극대화에만 온 신경이 쏠려 있는 탓에 ‘남는 것’을 죄악시하며 심지어는 경멸한다.

‘김상욱의 과학공부’는 과학적 사고를 하는 물리학자가 우리 사회의 여러 이슈를 인문학적으로 통찰한 결과를 다룬 책이다. 저자는 우리 사회에 잉여를 허(許)할 것을 촉구한다.

그는 언어와 인간 DNA에 담긴 잉여성을 설명하며, 우리 인간에게도 ‘여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일깨운다. 지난 1970년대 뉴욕 지하철 포스터에 “if u cn rd ths, u cn gt a gd jb w hi pa!”라는 문장이 실린다. 간단한 영어 단어 몇 개로 의미 추론이 가능하다. “If you can read this, you can get a good job with high pay!”(이걸 읽을 수 있다면, 당신은 고연봉의 좋은 직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주어진 문장에서 철자의 절반을 빼더라도 이해하는 데 지장이 없다는 사실을 통해 우리는 언어의 잉여성을 이해하게 된다.

책에 따르면, DNA는 잉여성의 종결자다. 인간 게놈 분석을 완료한 과학자들은 전체 유전자 가운데 의미 있는 유전자의 양이 너무 적다는 사실에 놀란다. 이후 이 정크 DNA가 재활용될



김상욱의 과학공부  
김상욱 지음/동아시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기 시작한다. 생명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DNA에 엄청난 잉여성을 둔 자연이 진화 과정을 거치며 다시 이것의 일부를 이용하고 있던 것.

저자는 “잉여는 말 그대로 ‘남는다’와 ‘필요 없다’는 뜻이다. 하지만 잉여인 것과 아닌 걸 나누려면 그 기준이 옳다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한다”며 “영원불멸한 기준이 아니라면 오늘의 잉여가 내일의 필수가 될 수도 있고, 오늘의 필수가 내일의 잉여가 될 수도 있다”고 말한다.

책은 잉여를 판단하는 ‘가치’에 의문을 제기한다. 저자는 “특허청 직원 아인슈타인의 잉여 연구가 상대론을, 고장 난 기계를 고치던 스티브 잡스의 잉여짓이 애플을 낳지 않았느냐”고 묻는다. 336쪽. 1만6000원. /김현정 기자 hjk1@



▲트럼프 ‘무역 전쟁’ 본격 시작...EU·캐나다 ‘맛볼’, 아시아는 ‘신중’  
▲머스크 칼질에도 올해 2월 美 연방 지출 7% 증가 /사진 뉴시스

▲젤렌스키 “러시아 점령지, 러 영토로 인정 안 할 것”  
▲트럼프, 성패트릭데이 백악관 방문한 아일랜드 총리에게도 “미국을 속여먹었다”

▲‘머스크 “업무 보고 안 하면 해고” 이메일 이라셔 파문  
▲EU 등과 달리 멕시코·브라질은 美 철강관세에 보복 안해